

국내 주력산업, 내년에도 '불투명'

'경제 산업전망 세미나' 회복세 더더... 전자·철강·건설 3강, 자동차·조선·석유화학 3약 앙상

내년도 국내 주력 산업의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부진이 우려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7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대내외 경제 전망과 산업별 동향 및 전망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2%대 저성장기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소득 증가 부진, 가계부채 리스크, 건설경기 둔화 등 내수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대외 여건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내년 상반기 대외경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완만하게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기업 부채와 과잉 공급 축소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지만 L자형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과 일본은 각각 브렉시트 협상과 아베노믹스 한계로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이어졌다. 다만 업종별로 보면 3강(전자·철강·건설)·3약(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업종은 기존 스마트폰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지만, 듀얼카메라와 플렉시블 OLED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의 수요 증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GM 볼트, 테슬라 모델3 등 2세대 전기차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방산업 침체 영향에도 철강재 및 비철금속 가격 상승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됐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강세 등으로 내년 상반기 출고 가격은 15~20%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산업도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해외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 반영이 상반기 완료되고, 글로벌 재정확대 정책기조에 따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이란 시장의 신규 발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내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2%로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0%), 한국(-2%) 시장의 부진이 심화할 전망이다.

조선은 극심한 발주 가뭄을 통과하면서 업황 개선이 기대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선박발주는 노후선박 교체로 올해보다 늘어나고,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규 환경규제도 선박 교체시기를 앞당길 전망이다. 하지만 수주 개선 시점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조선사들의 매출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화학은 상반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상반기 내 시설 정비로 마무리와 하반기 북미 EOC(에탄분해시설) 신증설 물량 출회가 주요 원인으로 진단됐다.

임상혁 전경련 전무는 "매년 11월이면 기업들이 다음 해 사업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데, 올해는 FTA 재협상 가능성과 내수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사업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기업과 국민 등 경제주체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굳어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세계 최초 '페인트 칠해 전기 생산'

손재성 UNIST 교수팀, 페인트 형태 고성능 열전 소재 개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페인트를 칠해 전기를 얻는 기술을 개발했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손재성 신소재공학부 교수팀이 '페인트처럼 바르는 열전 소재'와 이 소재로 열전발전기를 만드는 '페인팅 공정'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도 잉크 형태의 열전 소재가 나오긴 했지만 성능이 매우 낮거나 프린팅 전용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초로 그려서 기존 열전 소재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열전발전기를 구현한 것으로, 다양한 모양의 열원에 그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열전효과는 열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반대로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는 현상이다.

이 효과는 이미 다양한 소형 냉각 장치와 자동차 엔진, 선박의 폐열 발전장치 등에 쓰인다. 이들 장치에는 직육면체 소재의 평판 열전 발전 모듈이 이용된다.

하지만 열을 가진 물체의 표면은 둥그스름한 경우도 많아 기존의 열전 소재를 적용해서는 효과적으로 열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재성 교수팀은 열원에 열전 페인트 소재를

발라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손 교수는 "페인팅 공정으로 일체화된 열전 모듈은 평판형 열전 모듈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열에너지를 회수했다"며 "재료 보존과 공정 단순화, 시스템 제작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술은 자연계에서 열로 인해 손실되는 에너지(60% 이상)의 회수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손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열전 페인트와 페인팅 공법은 열원의 형상, 종류, 크기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다"며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형태의 배·폐열 발전은 물론 건물 외벽, 지붕, 차량 외관 등에 도입해 새로운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논문은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지난 1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UNIST의 조욱·최경진·이석빈 교수, KIST의 권법진·김진상·현도빈 박사, 한국전기연구원 이지은 박사 등도 참여했다. /뉴시스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 의문

매각 가격 평균 1만1768원... 시장 예상치 밑돌아 남은 지분은 21.4%... 주당 1만5000원에는 팔아야

정부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가격으로 우리은행 지분을 팔아 공적자금을 100%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우리은행의 매각 가격은 주당 평균 1만1768원으로 시장 예상치인 1만2000원 선을 밑돌았다. 정부는 일종의 가격 하한선인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투자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는데 예정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1만1768원은 본입찰이 치러진 지난 11일 증가(1만2750원)는 물론 최근 두 달 평균보다도 약간 낮다. 민영화 추진 일정을 발표한 8월22일 이후 이달 11일까지 평균치인 1만1629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매각 이슈가 불거진 이후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해 매각 단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장은 2014년 우리은행 소수 지분 매각 당시 입찰가가 매각 예정 가격보다 50원 낮아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분입할 직전 불거진 트럼프 악재 등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싼 값에 팔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매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은 21.4%로 줄게 됐다. 남은 공적 자금은 2조2000억원으로 차기 매각에서 주당 약 1만5000원에는 팔아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14일 전거래일보다 4.31% 내린 1만22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집단경영체제의 지배구조가 안착하고 건전·수익성 지표가 개선되면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은행 주가가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주사 전환과 주주환원 정책 등이 실제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기대감에 미래에셋증권은 우리은행 목표주가를 1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잔여 지분에 대한 매각 일정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공적 자금 회수를 재고한다는 방침만 세웠다. 따라서 주가가 1만5000원 이상은 올라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앞으로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과점주주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매각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5G 커넥티드카' 세계 최초로 선보여

SKT-BMW, MOU 체결·기술 시연회 열어

SK텔레콤과 BMW그룹코리아가 세계 최초로 5G 커넥티드카를 선보였다.

SK텔레콤과 BMW그룹코리아는 15일 5G 무선통신 커넥티드카 기술 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턴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협력으로 양사는 BMW드라이빙센터에 280㎓ 주파수 대역의 5G 파일럿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BMW 뉴X5와 7시리즈 차량에 5G 단말기를 장착해 다양한 5G 커넥티드카(IT를 융합해 실시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기술 연구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인 5G 커넥티드카 연구는 2020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5G 무선통신 기술을 미리 차량에 적용해 실제로 자동차 주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다.

양사는 ▲영상 인식 ▲5G V2X(Vehicle to Infrastructure)와 4K UHD 영상 스트리밍 ▲360도 VR ▲홀로그래프 라이브 컨퍼런스 ▲5G 익스피리언스 버스 ▲드론 헬퍼(Drone Helper) 등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5G 무선통신은 28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네트워크의 속도가 기존보다 최대 200배 빠르다.

이날 5G 무선 통신을 이용한 자동차 커넥티드 시연이 펼쳐졌다.

트랙에서 5G 단말기가 설치된 두 대 차량으로 실제 도로 주행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전방 차량들의 위치, 속도 등 교통상황을 달리는 차량이 수신해 안전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뉴시스

국내 개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 장학퀴즈 출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EBS 장학퀴즈에 출연해 퀴즈 대결을 펼친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오는 18일 국내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AI) '엑소브레인(Exobrain)'이 EBS 장학퀴즈에 출연해 지식 대결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엑소브레인'은 ETRI가 기계와 인간의 의사소통을 뛰어넘어 지식소통이 가능하고, 전문가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인공 두뇌를 목표로 개발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 언어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1단계 과제 가 수행 중이다.

현재 지식축적 및 탐색이 가능하고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어 질문을 듣고 정답을 추론해 응답할 수 있다.

엑소브레인은 장학퀴즈에서 율해상·하반기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고등학생 2명과 2016년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한 대학생, 방송사 두뇌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낸 연예인과 함께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